

2009. 12. 7 제228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기업 광고를 유치해 지하철 공연 후원 (런던)
2. 새로운 '에펠탑 빛의 축제' 진행 (파리)

### 산업·경제

3. 10대 청소년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기술·직업 교육 지원 (런던)
4. 의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투자 확충 (북경)
5.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 (상하이)

### 건강·복지

6. 학교에서 요리실습을 하는 '스쿨키친' 설치 (독일)
7. 저소득층에게 휴대전화 무상 보급 추진 (브라질)
8. 칠판 대신 멀티미디어 보드로 학교 수업 진행 (베를린)
9. 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액션플랜' (일본)

### 행정·재정

10. 2009년 시정 경영성과 발표 (뉴욕)
11. 市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을 새롭게 구축 (베를린)

## 목 차

### 방재·안전

12.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도쿄)

### 도시환경

13. 2012년까지 최소 20만 가구를 '탄소 저감주택'으로 개조 (런던)
14.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연구 수행 (도쿄)
15. 유류 소비율이 높은 영업용 차량 강제 퇴출 (북경)
16.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우대혜택 제공 (상하이)

### 도시교통

17. 제한속도 위반을 감시하는 신개념 교통신호체계 시범 운영 (런던)
18. 유럽 최대 규모의 X자형 횡단보도를 도심지에 설치 (런던)
19. 공영 철도역에서 카풀 서비스 시행 (파리)

### 도시계획·주택

20. 독일 최초로 주택단지에 품질 인증마크 수여 (베를린)
21. '주택혁명' 실현을 위해 공공용지 이용계획 발표 (런던)
22. 녹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캠페인 실시 (영국)

### 1. 기업 광고를 유치해 지하철 공연 후원 (런던)

○ 런던 지하철공사는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특별 버스커(Busker) 후원기업으로 코카콜라를 선정했다고 발표함. 버스커란 대도시에서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공연을 벌이는 이들을 말함.

- 교통시설 광고 전문업체인 CBS Outdoor가 코카콜라 상표가 그려진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함.

· 지하철공사는 하루 평균 350만~4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즐거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버스킹(Busking)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지하철 내 공연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객차 내 공연은 금지되어 있음. 지하철공사가 공연자의 예술적인 능력을 심사한 뒤 자격증을 부여함. 현재 21개 지하철 역사에서 약 240명의 거리 예술가가 활동 중임.

·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버스킹 제도가 승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관객을 직접 만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연자에게도 인기가 높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545.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545.aspx))

### 2. 새로운 ‘에펠탑 빛의 축제’ 진행 (파리)

○ 파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에펠탑의 조명 쇼를 확대하기로 함. 2009년 12월 31일까지 매일 밤 8시, 9시, 10시, 11시에 화려한 조명 축제를 펼침.

- 그동안은 조명 쇼가 매일 밤 정시에 약 5분간 진행되었는데, 12월에는 이 쇼가 끝나면 약 12분 동안 새로운 빛의 축제가 펼쳐짐.

- 에펠탑 운영업체는 2005년에 전구를 교체해 약 30%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LED 조명기술을 이용한 이번 쇼는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5074&portlet\\_id=21961](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5074&portlet_id=21961))

## 한 줄 뉴스

- 파리
  -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의 날’ 행사를 2009년 10월 22~25일 개최
  -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자전거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 베를린
  - 2009년 11월 4일 ‘그린 경제’란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어 경제발전의 관건이 에너지 기술 혁신임을 재확인

### 3. 10대 청소년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기술·직업 교육 지원 (런던)

○ 런던시는 230억 파운드(약 44조 64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약 8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직업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치는 데 사용할 계획임.

- 특히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19세의 10대 청소년을 돕는 기관에 주로 지원될 예정임. 이는 침체 상태인 런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

- 이들 청소년의 공통적인 문제는 쓰고 읽고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일탈행위를 하거나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임.

· 청소년의 일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기관은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견습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280](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280))

### 4. 의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투자 확충 (북경)

○ 북경시 생명·의약산업이 2001년부터 8년 연속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해 자동차 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주력군으로 부상함. 시 통계국에 따르면 2009년 1~3분기 북경의 의약산업 생산액은 88억 위안(약 1조 4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공학·의약업체인 미국 젠자임(Genzyme)사는 북경에 R&D센터와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함. 국제적으로 유명한 생의약 제조업체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총투자액은 1억 위안(약 170억 원)임.

· 중국 최대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마이루이社도 5억 위안(약 850억 원)을 들여 R&D센터를 북경에 세울 예정임.

- 市는 ‘북경市 생명·의약산업 촉진방안’을 최근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市는 생명·의약산업을 북경을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beijing.gov.cn/ggfw/tzz/tzdt/t1093150.htm](http://www.beijing.gov.cn/ggfw/tzz/tzdt/t1093150.htm))

(北京日报, 2009. 11. 8)

## 5.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 (상하이)

- 상하이市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청년 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소한 임금의 60%를 지원함.

- 인턴에게는 생활비로 576위안(약 9만 8000원)을 지원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시켜 줌. 區와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인턴 채용기간도 종전의 3~6개월에서 1~2개월 더 연장함. 또한 상하이 엑스포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대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市는 2009년 9월까지 1만 1300명의 졸업생이 인턴으로 일했으며, 이들의 2/3 정도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추정함.

([www.sh.xinhuanet.com/2009-11/15/content\\_18233325.htm](http://www.sh.xinhuanet.com/2009-11/15/content_18233325.htm))

### 한 줄 뉴스

#### ● 북경

- 런민大에서 조사·발표한 2009년도 시민 공공예절지수가 ‘공중도덕 지키기’ 캠페인에 힘입어 2008년보다 상승
- 문화산업 발전기금으로 3억 위안(약 510억 원)을 조성·투자할 계획

## 건강 · 복지

### 6. 학교에서 요리실습을 하는 ‘스쿨키친’ 설치 (독일)

○ 2009년 11월 11일 베를린市 리히텐베르그區의 에반젤리칼 학교에서 ‘스쿨키친’이 문을 엮. 스쿨키친은 2008년 발족한 ‘In Form’이 펼치는 프로젝트임.

-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와 보건부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In Form을 조직함.
  - 2020년까지 펼칠 이 캠페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과 운동 지원에 중점을 둠.
- 스쿨키친은 학생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릴 때부터 식품을 조리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치됨.
  - 학교는 학생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육체적 성장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스쿨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이 됨. 앞으로 스쿨키친은 다른 여러 학교로 확산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2010년에 전국 학생 요리경연대회를 열 계획임.

([www.bmelv.de/cln\\_102/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09/264-AI-KuechenFuerDeutschlandsSchulen.html?nn=310770](http://www.bmelv.de/cln_102/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09/264-AI-KuechenFuerDeutschlandsSchulen.html?nn=310770))

([www.in-form.de/cln\\_099/nn\\_1214786/DE/Service/Presse/PM2009-06-25EinJahrINFORM.html](http://www.in-form.de/cln_099/nn_1214786/DE/Service/Presse/PM2009-06-25EinJahrINFORM.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자리잡았음. 연방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식습관 개선과 운동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In Form’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 스쿨키친 프로젝트는 비만의 주요 원인인 인스턴트식품과 고열량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교육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임.
-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비만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곳을 선정해 비만예방 교실을 열고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훈련과 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초·중·고교에서는 100% 급식을 실시해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요리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식생활 환경 및 영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매점 환경을 개선하여 과일 및 과일제품 등 건강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매점사업’을 추진 중임.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 7. 저소득층에게 휴대전화 무상 보급 추진 (브라질)

- 브라질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혜택을 받는 1100만 저소득층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보급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임.
- 이동통신업체가 저소득층 가정에 휴대전화 한 대와 월 7헤알(약 4700원) 정도의 통화요금을 지원하고, 7헤알을 넘어 사용한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함.
-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납부하는 통신감독기금 조성세를 면제할 방침임. 면제되는 세금규모는 2년 기준으로 20억 헤알(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연방정부 통신부는 이동통신업체의 시장 개척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새로운 소비자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하는 휴대전화 무

상 보급 방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함.  
(diario.iol.pt/tecnologia/comunicacoes-tvi24-lula-telemoveis-brasil/1102505-4069.html)

## 8. 칠판 대신 멀티미디어 보드로 학교 수업 진행 (베를린)

○ 베를린시의 전자교육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식 전달과 학습법 개선을 위한 화이트보드 프로젝트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김나지움(중등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됨. 이 학교는 칠판 대신 하얀 멀티미디어 액티브 보드로 수업을 진행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보드를 이용해 진행하는 수업이 학생에게 더 많은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도도 높이며,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도 덜어 줌.

· 교사가 멀티미디어 보드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면 수업과 학습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06/145151/index.html)

## 9. 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액션플랜’ (일본)

○ 일본 정부는 2009년 10월 23일 ‘긴급 고용대책’을 발표함.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액션플랜’이 주목받고 있음. 고용 악화로 가장 크게 곤란을 겪는 대상은 구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등임.

- 긴급 지원 액션플랜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6~12월)에 고용보험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주민을 파악해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 주거생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함.

·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의 고용 확대대책으로 대학의 취업지도 제도화,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 기업에 고용 확대 및 상시채용 요청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연말연시에 집중 지원하는 ‘연말연시 생활 종합상담’,

‘연말연시 파견촌’ 프로그램을 강화함.

- 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이 주거공간을 찾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숙박시설(연말연시 파견촌)에 입주하도록 함.

-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에서 긴급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함.

- 선정된 3개 분야는 복지서비스(장애인·고령자 지원), 그린(농림, 환경, 에너지, 관광), 지역사회(사회적 과제, 인재 육성, 가정보육 사업) 분야임.

([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koyou/honbun.pdf](http://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koyou/honbun.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9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9200.htm))

([eulabourlaw.cocolog-nifty.com/blog/2009/10/post-cffd.html](http://eulabourlaw.cocolog-nifty.com/blog/2009/10/post-cffd.html))

## 한 줄 뉴스

### ● 상하이

- 2010년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매년 약 1000만 명이 방문해 유관 분야 산업과 市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 중국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균등하게 대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여법 개정안 마련

### 10. 2009년 시정 경영성과 발표 (뉴욕)

○ 뉴욕市는 2009년 시정 경영성과를 발표함. 市는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재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시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강조함. 분야별 시정 경영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 안전: ① 미국 대도시 중 가장 안전한 10대 도시로 선정, ② 중범죄 발생비율이 전년 대비 7% 감소, ③ 화재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8% 감소, ④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화재 신고에 대한 대응시간은 감소, ⑤ 경찰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년 대비 2% 증가
- 삶의 질: ① 도시 청결도 증진, ② 311 서비스 이용 증가, ③ 도로포장률, 가로수·정원수 증가, ④ 여가시설 멤버십 증가, ⑤ 물 소비량 감소, ⑥ 주거에 관한 불만 증가
- 교육: ① 영어·수학 교육 성취도 상승, ② 고교 졸업자비율 증가, ③ 학교시설 확충, ④ 학교 행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 증가, ⑤ 학교시설 안전도 증가, ⑥ 학급당 학생 수 증가
- 인적 서비스: ① 노숙자 감소, ② 자가주택비율 증가, ③ 어린이집 불만족도 감소, ④ 아동보호업무 감소, ⑤ 생계비 수급자 증가
- 보건: ① 성인 천식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 ② 에이즈 사망률·흡연율 감소, ③ 영아 사망률·매독 발병률 증가
- 경제: ① 여성과 소수민족의 창업 증가, ② 실업률 2.3% 증가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

## 11. 市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을 새롭게 구축 (베를린)

- 베를린市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www.berlin.de'의 모바일 버전이 새롭게 구축됨. <http://mobil.berlin.de>와 <http://m.berlin.de>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음.
- 시민 서비스, 공지사항 같은 최신 정보가 제공되며 영화나 행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됨. 응급구호시설 주소나 전화번호도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기업·개인용 전화번호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운행시각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가장 빠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검색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개별 네트워크 제공자나 콘텐츠에 따라 정보 이용요금이 부과되기도 함. 市는 앞으로 관광·스포츠 분야 정보 서비스를 더 확충할 계획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12/14587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12/145874/index.html))

### 한 줄 뉴스

#### ● 도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고효율 순간온수기' 인증제도 마련
- 공원에서 나뭇가지나 잎, 도토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드는 행사를 2009년 12월 19일 개최
- 태양광보다 효율이 높은 태양열 설비 이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2009년 12월 2일 개최

## 방재 · 안전

### 12.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도쿄)

○ 도쿄都 교육위원회는 어린이 스스로가 위험을 예측하고 즉각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2009년 3월 일본 최초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해왔음.

- 都는 2009년 12월 5일 안전교육포럼을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위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과 토론을 실시함.

· 성과 발표는 ①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응, ② 긴급 지진 속보에 대응한 피난 훈련 및 방재 학습, ③ 특수학교에서의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④ 사이버 범죄 대응, ⑤ 자전거 교통사고 대응 등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b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b200.htm))

## 도시 환경

### 13. 2012년까지 최소 20만 가구를 ‘탄소 저감주택’으로 개조 (런던)

○ 런던市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9년 11월 10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까지 최소 20만 가구를 ‘탄소 저감주택’으로 개조할 계획임.

- 먼저 9개 자치구에서 미리 선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 및 주택 개조 사업을 무료로 실시함.

· 이 사업은 친환경 전구 교체, 절전용 플러그 설치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1차 사업)으로 시작해 지붕·외벽 보강공사 등(2차 사업)으로 개조 수준을 높여나가고, 대상 지역도 9개 區에서 市 전역으로 확대함.

- 대상가구 수는 20만~50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며 2015년까지 총 120만 가구

를 개조한다는 목표를 세움. 개조사업 예산은 市뿐 아니라 중앙정부,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할 계획임.

- 2015년까지 1차 사업만 완료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5만 톤 줄일 수 있고 2차 사업을 완료하면 연간 120만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244](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244))

### >>> 전문가 검토의견

- 2009년 11월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전까지 최소 20만 가구의 주거공간을 탄소 저감주택으로 개조하려는 런던市的 계획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주거단지’(Low Carbon Community) 사업 효과를 구체적·실용적으로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특히 市는 중앙정부에 앞서 저탄소 사회 실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탄소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2009년 7월 2일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0·20·20’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서울시는 기후친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이용 진단,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추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정·적용,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감 및 녹색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인 주거공간에서의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소비 절감은 시민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임을 감안해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 에너지 이용정보 구축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4.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연구 수행 (도쿄)

- 도쿄都 수도국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모형 공동연구를 시행해오고 있음.
- 2009년 ‘수도사업의 환경부하 저감대책 및 고기능 합착재료 연구개발’이란 주제로 공동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와세다 대학에서 제안한 ‘제올라이트 성형체를 이용한 정수 처리기술 개발’이 선정되었음. 연구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임.
- 생물 활성탄을 이용한 정수 처리는 수온 저하 등으로 암모니아태질소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함. 이에 암모니아태질소 제거효율이 높은 제올라이트(Zeolite) 성형체를 흡착제로 이용하여 처리성능을 높이려는 연구를 진행하게 됨.
  - 암모니아태질소는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이온 형태의 질소로, 염소와 반응하며 수돗물의 맛에 영향을 미침. 제올라이트는 알루미늄과 규소 산화물로 구성된 광물로, 미세 공극이 있어 암모니아태질소 제거효율이 높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b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b100.htm))

#### 15. 유류 소비율이 높은 영업용 차량 강제 퇴출 (북경)

- 북경市 교통운수국은 ‘도로 운수차량 연료소비량 검사·감독 관리방안’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영업용 차량 허가제를 실시함. 2010년 3월부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유류 고소비 차량은 도로 운수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운수시장에서 퇴출됨.
- 중국 교통운수업은 석유 소비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유류 소비업종이며, 연료 소비액이 운수업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함. 동시에 차량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음. 유럽보다 25%, 일본보다 20%, 미국보다 10%가량 에너지 이용효율이 떨어짐.



- 市는 차량 연비를 높임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녹색운전’ 캠페인도 펼침. 좋은 운전습관은 유류 소비를 20%가량 줄임.
- 중국에는 현재 170만 대의 영업용 차량이 있음. 단순계산으로 유류 소비량을 20%만 줄이면 매년 680만 톤의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2100만 톤 줄일 수 있음.

(<http://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92723.htm>)

(北京日报, 2009. 11. 5)

## 16.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우대혜택 제공 (상하이)

- 상하이市는 소비자가 市에서 생산되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우대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2010년부터 소비자는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하는 자동차 구매 시 번호판을 무료로 취득하고 5~10%에 이르는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음.
- 상하이에서는 경매로 번호판을 취득하는데, 보통 3~4만 위안(약 508만~680만원) 정도 비용이 듦. 이를 고려하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우대혜택은 실질적으로 수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초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2012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50만 대 생산·판매하고 전체 자동차 수요의 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http://finance.qq.com/a/20091104/000786.htm>)

### 17. 제한속도 위반을 감시하는 신개념 교통신호체계 시범 운영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으면 교통신호를 정지 신호(적색)로 바꾸는 등 제한속도 준수 여부를 반영하여 신호 발생시간을 조절하는 신개념 교통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함.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런던 북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변화가인 캄든 하이 스트리트임. 2009년 12월부터 총 18개월간 시범사업이 시행됨.

· 새로운 신호체계는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큰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약 48km)에서 20마일(약 32km)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됨. 교통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출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이 42%가량 감소함.

-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캄든 하이 스트리트는 캄든區 내 주요 도로의 평균 교통사고 건수보다 2배나 많은 사고 빈발지역이며 통행차량과 보행자 수도 많아 교통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지점임.

· 市는 신개념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569.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569.aspx))

### 18. 유럽 최대 규모의 X자형 횡단보도를 도심지에 설치 (런던)

○ 런던市는 유럽에서 가장 큰 X자형 횡단보도를 중심가인 옥스퍼드 거리에 설치함.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보행 통행량을 기존보다 두 배 정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보행자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됨.

- 市는 옥스퍼드 가로와 리젠트 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로를 넓히고 새로운 조명도 설치함. 새로운 보행환경 조성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 면

적이 312제곱미터 정도 증가함. 이는 이전보다 69% 향상된 것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15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159))

## 19. 공영 철도역에서 카풀 서비스 시행 (파리)

○ 파리市 공영 철도회사가 철도역에서 이용자의 집 사이를 오가는 카풀 서비스를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함. 카풀 서비스는 현재 23개 역에서 시험 실시되고 있으며 곧 385개 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 이 서비스는 역에서 집까지 또는 집에서 역까지 두 경로로 운영됨.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역과 집 주소를 입력하면 카풀을 할 수 있는 운전자와 연결해줌.

· 이 사이트에서는 운전자나 이용자가 탑승인원, 연식, 운행 거리, 연료비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계산할 수 있음.

-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객은 무거운 짐을 역까지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운전자는 교통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교통체증도 완화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市는 카풀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http://www.transilien.com/web/site>)

(<http://covoiturage.transilien.com>)

### 한 줄 뉴스

#### ● 뉴욕

- 2009년 11월 100번째 리조닝(Rezoning) 계획 추진을 기념해 1961년 이후 리조닝 계획史 소개

#### ● 브라질 산토스市

- 커피 박물관에서 브라질과 프랑스의 문화·과학 교류 현황 및 성과물 전시

### 20. 독일 최초로 주택단지에 품질 인증마크 수여 (베를린)

○ 베를린市 메르키셔 지역 내 주택단지인 ‘본콤포트 50+’(Wohnkomfort 50+)가 독일의 품질평가기관인 기술감독협회로부터 TÜV 인증마크를 받음.

- 이 인증마크는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시스템에 대한 품질인증 마크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독일에서 제품과 기술운영 시스템 외에 주택단지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주택단지는 베를린 소재 주택 건설업체인 Gesobau社가 1만 3000여 주택을 개조해 조성하였으며, 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2%인 점을 고려해 건설함.
  - ① 건물의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② 출입문과 욕실·샤워부스 문턱 제거, ③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베란다 설치, ④ 휠체어와 환자 이송용 침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복도 설치, ⑤ 단지 내에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설치, ⑥ 가까운 거리에 쇼핑센터·서비스센터·의료시설 조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음.
- 市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 건설이 향후 주택 건설회사의 주요 과제라고 보고 이 건설업체의 시도를 높이 평가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11/nachricht3697.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11/nachricht3697.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위 사례는 ‘쾌적한 주거단지’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적용하였다는 점이 핵심임. 독일 기술감독협회(TÜV)는 산업제품과 기술 운영, 환경, 신재생에너지원 등에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 인증마크는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는 국제적 인증을 나타냄.

- 기술감독협회는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신뢰할 만한 제품 등이 국제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사(TÜV SÜD KOREA)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공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무장애·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무장애 공간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기술수준은 낮음. 장애인 관련 제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이 활발해지면 이 분야의 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택단지 내 건물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단계별 검증을 거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독일 기술감독협회가 인증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다른 변수(기후환경, 인체치수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TÜV가 협업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음.

/김민경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min@sdi.re.kr)

## 21. ‘주택혁명’ 실현을 위해 공공용지 이용계획 발표 (런던)

- 런던시는 최근 ‘주택혁명’을 위한 시 소유 토지 이용계획을 발표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지에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함. 시는 이 계획이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시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연간 10억 파운드(약 2조 원)를 투자할 계획임.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민을 위해 서민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160](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160))

## 22. 녹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캠페인 실시 (영국)

○ 영국 건축·도시환경위원회는 녹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캠페인인 ‘회색에서 녹색으로’(Grey to Green)를 실시함. 이 캠페인은 공공이 도로와 건물보다는 거리 및 옥상 녹화, 공원 및 수변녹지 조성 등 녹지 기반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녹지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더 나은 기술력과 디자인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 정원사’ (City Gardener)를 지정하고 녹지 기반시설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966289/CABE-launches-green-infrastructure-campaign](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966289/CABE-launches-green-infrastructure-campaign))

### 한 줄 뉴스

- 브라질 쿠리치바市
  - 재활용품을 수집해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전시
- 영국
  - 도시농촌계획협회, 새로운 에코타운 지침을 마련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